**마2603-2 Note**

**◆도우미: 가야바와 안나스** (호크마 주석에서 인용)

마태복음과 요한복옴(요 11:49)에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라고 언급되는데 반해

누가복음에서는(눅 3:2; 행 4:6) 안나스가 대제사장이라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기록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가야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데, 가야바와 안나스의 관계는 장인,사위의

관계이다.

가야바에 앞서 그의 장인 안나스는 총독 구레뇨에 의해 A.D. 6년에 대제사장이 되었

다가 9년만인 A.D. 15년에 해임되었다.

그 자리를 이스마엘, 안나스의 아들인 엘르아살, 시몬 등이 차례로 승계하다가

A.D. 18년에 가야바가 빌라도의 전임 총독인 '발레리오 그라토'(Valerius Gratius, A

.D. 15-26)의 후원으로 대제사장이 되어 A.D. 36년 총독 비텔리우스(Vitellius)에 의

해 해임될 때까지 대제사장에 머무른다.

그런데 가야바의 대제사장직은 유대법에 의하면 불법이다.

왜냐하면 유대법은(민 20:25,26) 대제사장직을 종신제, 세습제로 규정하는 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는 그의 장인 안나스가 아직 생존해 있었기 때문이

다.

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로마가 팔레스틴을 점령한 후 자기들이 통치하기에 편리한

인물로 피지배국의 종교 지도자들을 임의(任意)로 선출하고, 정치적 목직에 따라 자

주 교체했기 때문이다.

실로 종교적 자주권을 상실했던 B.C. 37년부터 성전이 파멸되기 전 마지막 대제사장

이 임명되었던 B.C. 67년 사이에 무려 28명 이상의 제사장들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잘 나타내 준다.

여하튼 사람들은 대제사장 가문에 소속된 자들을 모두 대제사장이라 칭했던 그 당시

관례에 따라 안나스와 가야바를 모두 대제사장이라고 불렀고

가야바의 장인으로서 안나스는 사임 뒤에도 그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